“옹산 대종사여, 참된 해제 누리옵소서”

수덕사, 6월 8일 영결식 엄수
우송 대종사 “생사 초월 경지”

유재상 충청지사장


덕숭총림 수덕사 선덕 숭담당 옹산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6월 8일 수덕사에서 엄수됐다.

덕숭총림 수덕사 선덕 숭담당 옹산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6월 8일 수덕사에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와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 장의위원장 도신 스님(수덕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 최재구 예산군수, 강승규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했다.

명종 5타로 시작된 영결식은 행장소개, 추도입정, 영결사, 법어, 추도사, 조사, 헌화, 문도대표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정경 스님, 행장소개는 정암사 주지 법룡 스님, 추도입정은 덕숭총림 유나 현전 스님이 맡았다.

장의위원장 도신 스님은 영결사에서 옹산 대종사가 향천사와 수덕사 주지를 역임하며 경허 스님과 만공 스님의 선풍을 계승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고 회고했다. 또 포살 법석에서 사부대중의 정신을 일깨우던 사자후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고 추모했다.

도신 스님은 “대종사께서는 안거가 끝나 맞이하는 해제는 진정한 해제가 아니며, 참된 성품을 깨달아 견성을 이룰 때 비로소 생사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해제가 된다고 하셨다”며 “철 따라 오고 가는 안거와 해제를 모두 마치신 큰스님께서 대자유와 대열반의 참된 해제를 누리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는 법어에서 옹산 대종사의 임종게를 통해 “삶과 죽음을 초월한 수행자의 경지”를 전하며 대중에게 본래면목을 돌아볼 것을 당부했다.

설정 대종사는 추도사에서 스님과의 오랜 인연을 회고하며 “수덕사가 많은 빚과 송사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 재무를 맡아 4년 만에 부채를 정리하고 사중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은사 스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경허·만공 선사를 선양하는 일에도 평생 정성을 다한 스님이었다”고 말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조사에서 “큰스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차 한 잔과 향 한 자루를 통해 생명과 희생, 헌신의 가르침을 남기셨다”며 “큰스님의 자비와 가르침이 충남 불교계와 지역사회에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도대표 허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출가 초기 옷 한 벌을 청하자 낡은 옷을 내주며 ‘나도 옷이 없다’고 말했던 일화를 전하며 “소박함과 청빈함, 정직함이야말로 은사 스님께서 문도들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라고 말했다.

영결식 후 법구는 사부대중의 만장행렬을 앞세우고 수덕사 경내를 돌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다비장에 이운된 법구는 사부대중의 염불 속에 연화대에 안치됐으며 참석자들은 큰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되새겼다. 거화 후 다비를 마친 법체는 습골 절차를 거쳐 다비장 일원에 산골됐다.

숭담당 옹산 대종사는 수덕사와 향천사 주지를 역임하며 경허·만공 선사의 선풍을 계승하는 데 힘써 왔다. 또 선문화 진흥과 수행도량 복원, 지역 포교와 문화유산 보존에 헌신한 선지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EXCO ○ 동관 전시장 ○ 4홀 ○ 6.11.목 - 6.14.일 ○○○ ○ 2026 ○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 ○ Korean Buddhism Culture Expo 2026 ○

AI 스님·반려견까지…엄숙함 벗은 불교문화엑스포 6월 11~14일, 대구 엑스코에서 ‘2026 대한민국 불교 문화 엑스포’가 열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엑스포는 대구·경북 지역의 전통 불교 문화에 첨단 기술과 지역 관광 산업을 접목해 불교의 가르침과 대중적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엑스포에는 149개 업체에서 총 229개 부스가 참여했다. 특히 트렌드 변화에 맞춰 최초로 ‘반려동물 친화적 프로그램’을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글·사진=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동화사, 첫 어린이법회 ‘성불놀이터’ 창단

6월 7일, 통일대불전서 창단식
선광 스님 “지혜로운 삶 배우길”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가 창건 이후 처음으로 어린이법회인 ‘성불놀이터’를 공식 창단하며 미래세대 포교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동화사는 6월 7일 통일대불전에서 어린이와 학부모,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동화사 어린이법회 창단식’을 봉행했다. 창단과 함께 모집한 ‘최초의 108인 어린이’는 접수 시작과 동시에 정원이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으며 어린이 포교에 대한 기대를 입증했다.

동화사 어린이법회는 ‘성불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 기존 강의 중심 어린이법회와 달리 사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놀이터로 활용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특징이다. 어린이들은 팔공산의 자연환경 속에서 뛰어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주지 선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우리 절에서는 경쟁이 아니라 지혜로 함께하고 나누는 삶을 배운다”며 “아이들이 훌륭한 인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동화사는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운 어린이 대표는 발원문에서 “1500년 동화사 역사 속 새로운 발걸음인 어린이법회의 첫 회원이 된 것을 큰 기쁨과 자랑으로 생각한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나와 세상을 밝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불놀이터는 매월 둘째·셋째·넷째 주 일요일에 운영되며 사찰음식과 발우공양을 활용한 소꿉놀이를 비롯해 병원놀이, 선명상, 공동체 놀이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포교국장 동우 스님은 “일반적인 법회와 달리 올 때마다 새로운 놀이와 특별한 이벤트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성불놀이터의 차별점”이라며 “여름방학 기간인 7월에는 여름불교학교를 열어 원어민 영어 캠프와 한자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베트남 사찰 ‘광주 길상사’ 개원

6월 7일, 개원법회 봉행해
“이주민 품는 도량 만들 것”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이주민과 불자들의 신행 중심도량이자 마음의 고향이 될 베트남불교 사찰 길상사가 광주 광산구에 문을 열었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자리한 베트남불교 길상사(주지 틱 뜨엉탄 스님)는 6월 7일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길상사 주지 틱 뜨엉탄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교민이 35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불교는 이주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길상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원오 총도량과 신도들의 원력으로 이뤄진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도심 속 작은 공간이지만 수행과 교육, 다문화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열린 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은 축사에서 “오늘 길상사의 개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광주 불교계는 베트남 불자들을 같은 길을 걷는 도반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함께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 호 주한 베트남대사는 축사를 통해 “길상사가 베트남 동포들의 마음의 안식처이자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문화·신행의 가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증명법사인 틱 꽝누언 스님은 법문에서 “사찰 건립의 목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데 있다”며 “타국에서 사찰을 세우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님들과 베트남 공동체의 원력으로 오늘의 결실을 맺게 됐다”고 격려했다. 이어 “길상사가 베트남 이주민과 젊은 세대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소중한 도량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 길상사는 연면적 500㎡ 규모의 4층 건물로 조성됐다. 3층은 법당과 수행공간, 2층은 숙소와 임시 거주 지원공간, 1층은 교육·문화행사 공간, 지하 1층은 공양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앞으로 베트남 불자들의 신행 터전이자 다문화 공동체를 위한 수행·교육·문화의 거점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천 청암사 “불교 다맥 계승”

6월 6일, 제1회 헌다례 봉행



김천 청암사(주지 상덕 스님)는 6월 6일 대웅전에서 삼보전에 차를 올리는 ‘제1회 헌다례’를 봉행하고, 차 수행의 의미와 전통 다도 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국 다도의 중흥조인 초의선사의 다맥을 계승하는 청암사의 수행 전통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삼보전에 올릴 차를 준비하는 ‘시다례’를 시작으로, 스님들이 직접 찻잔을 들고 대웅전으로 향해 정성껏 우려낸 차를 공양하는 ‘헌다 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통적인 녹차와 말차, 보이차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친숙한 커피가 공양물로 올려져 눈길을 끌었다.

주지 상덕 스님은 법문을 통해 “단순히 고급스러운 음료로 여겨 화려함이나 특별함만을 추구하는 다도 생활은 승가에서 경계해야 할 바”라며 “청암의 수행자들은 이번 행사를 차 수행의 과정에서 흩어진 마음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암사는 첫 헌다례를 시작으로 차를 통한 불교 수행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사찰에서 직접 100일간 발효·숙성한 약차를 제다(製茶)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차 수행과 명상 문화를 대중에게 더욱 널리 알릴 방침이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1회 마이산 탑사 그라운드골프대회 성료

6월 9일 진안읍 공설운동장서



진안 마이산 탑사(회주 진성 스님)가 무주·진안·장수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첫 번째 그라운드골프대회를 개최했다.

6월 9일 진안읍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마이산 탑사배 그라운드골프대회(개인전)’는 진안군을 비롯해 인근 무주군과 장수군 어르신 선수 80여 명이 참가했다.

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은 구상모 어르신이 차지했다. 이어 준우승은 최우상, 3위는 이인화, 장려상은 유태영·문순이·장종섭·정용수 어르신이 이름을 올렸다.

마이산 탑사 붓다봉사단과 보리수봉사단은 경기 운영과 행사 안내를 맡아 원활한 대회 진행을 도왔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커피봉사단은 핸드드립 커피를 제공했다.

개막식에서 김용진 진안군 그라운드골프협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스포츠를 즐기며 화합하는 제1회 대회를 지원해 준 마이산 탑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마이산 탑사 회주 진성 스님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이산 탑사 붓다봉사단이 전체적인 후원을 맡아 제1회 대회를 시작하게 됐다”며 “오늘 대회를 시작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진안과 무주, 장수를 아우르는 ‘무진장 그라운드골프대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수덕사, 경허 선사 열반 114주기 다례

6월 9일 대웅전서 열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6월 9일 대웅전에서 한국 근현대 선불교 중흥조인 경허당 성우 대선사 열반 114주기 다례를 봉행했다.

다례에는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와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등 참석해 경허 스님의 수행 정신과 선풍을 기렸다.

설정 스님은 “조선시대 불교 탄압으로 정법의 등불이 꺼져가던 시기에 경허 스님은 부처님 정법의 선등을 다시 밝히셨다”고 말했다. 이어 “출·재가를 막론하고 불법을 믿고 깨달음을 이루고자 한다면 경허 스님이 남긴 ‘참선곡’ ‘법문곡’ ‘중노릇하는 법’ ‘가가가음’의 네 법문을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며 “수덕사가 이를 소책자로 만들어 누구든지 읽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화암사·심원사·자인사, 합동 방생법회

6월 7일 화암사 다라지서



화암사(주지 대현 스님)와 심원사(주지 청현 스님), 자인사(주지 홍현 스님)는 6월 7일 화암사 경내 연못인 다라지(陀羅池)에서 ‘합동 방생법회’를 열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해 생명존중과 평화의 정신을 함께 되새겼다.

심원사 주지 청현 스님은 “방생법회는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의 한 방편으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자비심을 키우는 자리”라고 강조했으며, 화암사 주지 대현 스님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방생법회를 통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법회에 이어 방생 의식을 진행하며 모든 생명의 존엄과 평화를 기원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